



제목	루미의 『마스나위』에 나타난 '사랑' 모티브와 종교철학적 해석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문학과종교학회 (문학과 종교 14-3)
발행일	2009. 12.
저자	신은희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1-37
ISBN 또는 ISSN	1229-5620

내용 요약

본 논문은 터키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인이자 사상가,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메블라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제랄루딘 루미(Jalal ad-Din ar-Rumi, 1207~1273)의 작품 『마스나위(Masnawi)』에 나타난 사랑 모티브를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물이다.

마스나위는 원래 페르시아와 터키 문학의 한 장르였는데, 문자적 뜻은 '2행'을 의미한다. 『마스나위』는 '수피문학의 꾸란' 혹은 '페르시아 꾸란'으로 칭송받는 수피문학의 대표작으로써, 루미는 자신의 스승 알-아라비의 신인합일 사상을 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 책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618에 달하는 2행 대구의 서정시 형태로 쓰여져 있으며, 시, 일화, 우화, 이야기, 격언, 비유의 방법으로 신적 사랑, 영적 지식, 진리 탐구, 우주론 등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루미 사상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논자는 우선 수피문학의 발생 배경과 『마스나위』 수피 시집에 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마스나위』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샴스에 대한 루미의 사랑과 이들의 정신적 유대감,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마스나위』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을 '사랑의 존재론', '사랑의 인식론', '사랑의 우주적 인간론'이라는 소주제로 구분하여 종교 철학적으로 해석하였다.